

시문학

백 발의 아들들이 부르는 노래

— 공화국 창건 70돐을 맞으며 —

내 한생이 기발아래

비전향장기수 함 세 환

경사로운 9월의 이 아침
나는 창가에 공화국기발을 띄운다
기운차게 퍼덕이는 기폭소리
류다른 인생길 걸어온 내 가슴에
못 잊을 추억 속삭여주누나

나의 한생 없었더라면
내 버려진 후회와 고뇌의 눈물 흘렸
으리
기발아래, 내 운명의 기발아래
너의 기폭과 함께 한 나의 한생은
후회란 없는 행복과 영광의 한생

공화국창건을 지지찬동하는 남녘의
민심
그 진정이 담긴 련관장을 품고
70년전 북으로 향한 열일곱살 소년
람홍색기폭에 안긴
나의 참된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어라

시작이 좋다해도 마무리에 그늘지면
그 인생 어이 아름다우랴
이 기발 지켜 조국이여 그대의 아들
참되게 살아 여생을 빛내이리

험준한 태백산줄기 주름잡아 달려며
늘 가슴에 품고있던 공화국기
죽음보다 더 가혹한 34년 옥살이
몸은 찢겨 화석처럼 변했어도
마음속엔 더 거세차게 휘날리던 이
기발

오, 사랑하는 나의 조국아
공화국기발아래 70년을 살았고
이제 다시 70년을 더 산대도
숨줄처럼 틀어쥐고 영원히 이 기폭
아래

만일 너 아닌 다른 기폭에

그대 위해 내 심장 새차게 고통치
리라
무궁세월 휘날리라 람홍색공화국기발
아래!

그이의 모습에서 봅니다

비전향장기수 홍 명 기

동해명승 송도원휴양의 나날
눈물속에 비쳤습니다
저는듯 한 삼복칠 폭열속에서도
현지지도길 걸으시는 원수님

눈 내려도 비 내려도 인민들 찾으시던
아버이수령님 모습입니다
세월은 되돌아올수 없다 했지만
수령님세월에 사는듯싶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꼭 같으십니까

열정의 모습, 자애로운 그이 모습은

농업협동화의 그 나날
내 재경벌에서 비운 수령님이십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존안
활달하신 그 걸음새까지도

인생에 이런 복도 있습니까
한번만 뷔외도 온 냇이 끌리여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는
수령님 같으신 우리 원수님
내 생애 모시였으니
몸은 늙어 백발이여도
청춘시절에 사는듯싶습니다

그이 자욱자욱에서 꽃피는
인민의 웃음, 인민의 행복
우후죽순처럼 이 땅에 솟아남니다
미래과학자거리, 러명거리...

행복의 만풍가

마식령엔 스키장, 명사십리엔 해양
공원...

그 감격 어이 다 노래하리라
그이의 지략, 그이의 령도따라
세상이 다 알수 없는 자강의 힘으로
날로 부강해지는 내 나라
그 조국의 아들이라는 긍지
이 가슴에 한없이 맥동칩니다

아, 수령님들과 꼭 같으신 인민의
아버이
겨레가 흠모하고 세인이 칭송하는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그이 모습에서 나는 봅니다
자랑찬 70년의 력사우에
찬란히 펼쳐질 내 조국의 밝은 앞날을

비전향장기수 리 재 룡

이 노래는 우리 집 애창곡이아오

노래가 없어야 무슨 명절이라
뜻깊은 공화국창건일의 이 저녁
저저마다 날더러 먼저 부르라네
아무렴, 내 부르겠소 《바다 만풍가》를

강원도 양양의 바다물을 먹으며
잔비가 굵어진 나는 소년어부
지고 다니는건 칠성만이요
먹는것은 사자밥이라
그 시절의 노래는 그리도 구슬프더니

홍겨운 민요가락 출이 절로 나오는
《바다 만풍가》엔 랑만이 출렁이오
바다를 좋아해 류달리 좋아하는 노래
나의 딸 축복아와 늘 함께 부르는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 가득...

이제라도 내 바다로 나가고싶소
만선기 날리는 배우에 올라
이 손으로 물고기산 쌍고싶구려

어이 바다에만 만풍이겠소
산에 가면 황금산 열매도 만풍

들에 가면 황금벌 이삭도 만풍
일떠선 새 거러엔 웃음도 가득...
노래에 담으려니 걱정이 북받치오
순탄한 나날에 이루어진 재부가

아니어서
우리 질식시키려는 악랄한 제재봉쇄
어렵고 간고한 시련을 박차며
퍼뎀으로 창조한 재부여서
이리도 더욱욱 목이 메이는것 아니
겠소
내게도 귀여운 자식 있어왔으면...

조국이여, 약동하라! 젊어지라!

비전향장기수 최 하 종

주책머리 없다 마십시오
아흔을 넘긴 이 늙은이가
젊음을 말한다고
청춘의 싱싱한 가슴들이 붉는
그런 푸르름을 이 늙은이가 말한다고

나이를 잊게 하는 벽관 세월을 살아
활력으로 늙는 이 가슴
어찌 젊음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
세월이 흐를수록 젊어지는데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전설의 별천지 늘어만 갑니다
바다우에 솟은 해상다리
석전만의 기적 동해에 펼쳐지더니
서해포구에 보물고개 솟아나
그림처럼 희한한 금산포지구입니다

산물고기 옥실대는 평양대동강수산물
식당
날마다 한복만 어장에 들어선듯
삼복의 무더위 시원하게 가져주고
기운차게 달리는 새형의 무궤도,

《총각할아버지》로 서러울던 나에게
새 가정 이루어 복동이 안게 해준
은혜
내 딸 축복아와 노래하리오
사랑의 바다 행복의 바다를 노래
부르겠소
더 풍성할 내 조국의 만풍을 노래하
겠소

케도전차는
거리를 꽃으로 단장한듯싶습니다
날마다 펼쳐지는 새라새로운 풍경
약동하는 조국의 숨결을 한껏 호흡
하며
인생교묘이 청엽으로 되었습니
다
운물엔 기운이 치솟고
백발은 질어도 로망익장합니다

세월이 주는 나이로 인생 산다했
지만
활기에 넘친 조국에 안겨살아
나날이 젊음이 넘쳐남니다
로쇠를 모르는 이 가슴엔
쇠물처럼 붉는 피가 흐릅니다

아, 젊음을 넘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처럼 나라도 인민도
청춘의 나라 청춘의 인민
나의 조국 위대한 김정은조선이여
끝없는 힘과 열정, 기백으로
길이 약동하라, 젊음에 넘쳐있
으라

— 신화적인 기적의 창조자들 —

공화국에서는 류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거창한 창조물들이 일떠서고있다.
물과 몇달전까지만 하여도 파도
소리만이 들리던 해안가에 현대
문명이 융축된 웅근 하나의 관광
지구가 웅장한 면모를 드러내고
백두산아래 첫동네라 불리우는 삼
지연군에 대한 건설이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관심속에 힘있게 벌여
지고있다.
나라의 전력문제해결에서 큰 몫
을 차지하게 될 단천발전소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는 가운데
전국도처의 건설장들에서 날에 날
마다 천지개벽의 불바람이 일어나
고있다. 그런가 하면 국가경제발
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

산돌격운동이 새차게 벌어지는 속
에 금속, 석탄, 철도운수, 화학
공업을 비롯한 수많은 부문들에서
혁신적인 성과들이 연일 기록되고
있다.
지금 공화국의 앞길을 가로막으
려는 적대세력들의 말악적인 책동
은 최절정을 이루고있다.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에 한층의 강
철이나 원유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
중삼중의 경제봉쇄를 가하고있다.
지어는 쌀이나 의약품과 같은 인
도주의적물자들의 수입마저 가로
막고있다.
바로 이러한 속에서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삼지연군건설과 원
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단천발
전소건설을 다그치고 증산돌격운

동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고있는
것은 실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수
없다.
한다면 이러한 기적의 밑바탕에
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라는대
로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고
반드시 잘살게 됩니다. 이것은 지
나온 생활체험을 통해 우리가 신념
으로 체득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
설에 펼쳐나선 건설자들의 심정만
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그이의 가르치심대로만 하
면 이 세상에 절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는것이 이
나라의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신

념이고 의지이다.
이런 신념과 의지로 만장약된 군
대와 인민의 비등된 열의가 오늘처
럼 가장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도
신화적인 기적의 력사를 써나가게
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
의 양양된 기세의 일대 파시인
동시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
된 공화국의 위력이기도 하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
음을 지니고 령도자와 뜻과 발걸음
을 함께 하는 군대와 인민이 있는
한 공화국은 최악의 어려움을 이겨
내고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서예축전장에서 만난 소녀

자과 함께 정서적으로 안겨오
는데 있다.
전시된 서예작품들의 세계
에 침투되어있는 나에게 안
내원은 이번 서예축전에 서
예전문가와 예호가는 물론 대
학, 초급, 고급중학교, 소학
교 학생들, 지어 유치원과 탁
아소어린이들까지 참가하였다
고 하면서 어린이들의 작품에
대한 평가가 대단하다고 말해
주었다.
이런 큰 서예축전에 아이들
까지 참가하였다는것도 놀라
웠지만 더우기 그들의 수준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
지 않을수 없었다.
이날 나는 축전에서 우수
한 평가를 받은 꼬마서예가들
을 만났다. 그들중에는 놀랍게
도 평양중등학교(조국에서 중
등학교는 초급 및 고급중학교
에 갈 나이의 부모없는 학생들
을 맡아 키우면서 그들에게 중

등일반교육을 주는 보통교육
기관을 이르는 말이다.) 학생
조해연도 있었다.
서예 《품》은 해연이가 쓴
붓글씨였다.
해연, 아름다운 바다새를
떠올리는 이름처럼 해연이의
얼굴은 맑고 몸가짐은 단아
했다.
나는 해연의 작품을 놓고 어
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소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그리
워하며 쓴 붓글씨라고 생각했
다. 설움설움해도 고아의 설움
보다 더 큰 설움은 없다는 말
이 있었어 부모의 따뜻한 사
랑의 품을 얼마나 그리웠었
으면 작품의 주제를 《품》으로
정했을까 하는 동정심을 금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순간 들려오는
소녀의 또랑또랑한 목소리는
나에게 예상치 못했던 충격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서는 우리 원아들도 나라의 기
등감, 자신의 아들딸들이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모든 사랑
을 다 안겨주려고합니다. 나는
한없이 따사로운 아버지사랑의
그 품을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
하고싶었습니다.》
소녀의 어조나 행동에서는
당돌함과 단정함이 함께 묻어
있었다.
지도교원의 말에 의하면 해
연이의 재능을 발견한것은 다
섯살때였다고 한다.
해연이는 그림그리기에 남다
른 취미를 보였는데 자기가 본
것들중에 인상에 남는것을 그
림종이에 옮겨놓곤 했다. 그것
이 어찌나 신동한지 보는 사람
마다 탄복할 정도였다.
후에는 붓을 쥐고 글씨쓰기
도 무척 좋아하였다. 담양교양
원은 그때부터 해연이에게 붓
치는 법으로부터 시작하여 서
예의 묘리를 하나하나 터득시
켜주었다고 한다.
해연이의 재능의 싹은 초등
학원에 이어 중등학교에 이르
기까지 지도교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날을 따라 몰라보게 자
라게 되었다.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지구
상 그 어디서나 고아라고 하면
불행과 서러움의 대명사로 공
인되어있다.
하지만 여기 조국땅에서는
어떻게 되어 해연이와 같은 부
모없는 아이들이 설움이란 말
조차 모르고 저렇듯 행복에 대
해 주름없이 말할수 있을까.
불쑥 눈앞에는 평양육아원
과 예육원을 찾았던 때가 떠

올랐다.
그날 평양육아원 원장은 《우
리 나라에서는 부모없는 아이
들이 명당자리에 일떠선 황홀
한 궁전에 보금자리를 펴고 행
복을 노래하고있습니다. 평양
육아원, 예육원은 온 나라의
아이들과 부모들모두가 부러
워하지 않는 행복의 요람, 아
이들의 궁전입니다.》라고 하
면서 원아들을 위해 바치지는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정말 평양육아원과 예육원은
안락으로 최고의 최고였다.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교양,
성장발육, 지능개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손색없이 꾸
려진 보육실과 잠방, 놀이
장과 물놀이장, 해빛조끼기
를 하며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
실수 있게 아담하게 조성해놓
은 뜨락, 치료병동, 연령실리
적특성에 맞게 제작된 책상
과 침대들, 보기 좋고 쓰기 편
리한 집기류들, 동시에 맞게
생활실들과 부엌등에 부각하
여 이채롭게 붙여놓은 그림장
식들...
우리보다 앞서 이곳을 찾았
던 유럽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런 눈부신 궁전이 부
모없는 아이들의 보금자리라
니, 직접 보지 않았다면 백번
을 듣는데도 믿지 못했겠지
다. 예로부터 궁전이라고 하
면 군주들의 위엄과 부귀의 상
징으로 통용되어왔다. 그런데
부유층의 자식들도 아닌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
로 이런 궁전같은 집이 일떠
섰다는 사실앞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평양육아원과 예육원을 본보
기로 그후 원산육아원과 예육
원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수
많은 육아원과 예육원들이 흥
륭하게 일떠서고 원아들이 행
복의 새 보금자리에 들어서는
광경이 펼쳐져 세상을 감동시
켰다.
친부모의 사랑과 정에도 비
길수 없는 한없이 따사롭고 은
혜로운 위대한 아버지의 품,
고마운 사회제도의 포근한 요
람에서 얼마나 많은 《해연》
이들이 자라나고있을까.
서예축전장을 떠나는 나의
귀전에는 소녀가 하던 말이 귀
전에서 떠날줄 몰랐다.
《우리 원아들을 제일로 아
껴주시는 아버지원수님의 품,
사회주의조국의 품이 세상에
서 제일입니다.》
재중동도 김영희